

지역사회 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가 미치는 영향: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Community-Residing Elderly's Attitude toward Own Aging and Effects of Personal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Focused on Elderly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최해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ae-Kyung Choi(kchoi@cnu.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60세 이상 노인 19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2.0을 이용해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인 지역사회 노인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개인자원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 변수 중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넷째,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참여 수준의 유의성이 사라져 자아존중감과 경제력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 개인자원 | 사회적 지지 | 사회참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own aging among community-residing elderly and the predictors of the attitude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elders aged 60+ with the cooperation of several social service center for the aged, senior centers, and senior citizen association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SPSS 22.0 software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research participant elderly's attitude toward own aging indicated fairly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own aging; (2)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dicating the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predicting the positive attitude of their own aging; (3)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predicted the positive attitude of their own aging; (4)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attitude; (5) In the full model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social participation disappeared, but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among personal resources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improve community-residing elderly'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own aging were discussed.

■ **keyword** : | Attitude toward Own Aging | Personal Resources | Social Support | Social Participation |

1. 연구배경 및 목적

장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는 어느 생애주기보다 중요해졌다. 2015년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의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와 같이 노년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노인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노화에 대한 태도 혹은 노화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다[2-4].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인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사회의 위험요소다. 비노인층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국외 연구들은 노인 당사자들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추정한다[6].

노화에 대한 태도가 건강행태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2][5][7-9]에 근거하면,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지니는 것은 노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진 노인은 좋은 심리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4]은 설득력이 있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검증되었는데 긍정적 노화태도를 지닌 사람은 노년이 부정적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에 비해 건강행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살며, 더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10]. 또한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처방약 복용 등 예방적 건강행동 실행과 관련이 있고[11],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신체기능 변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예측 요인으로 밝혀져 [12-14], 노화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으면 노인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같이 노화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과 함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 동안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노인이 아닌 연령대의 사람들이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적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자신의 노화에 대한 노인 당사자의 인식과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축적된 연구의 상당수는 대학생, 중년기 성인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16-18]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밖에도 세대별 비교[19],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20][21]가 이루어졌다.

자신의 노화에 대한 노인의 태도와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10][22]. 우리나라 경우도 유사한 실정이다. 이미진[6], 조아라, 오희영[19]의 연구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나 연구대상에 중장년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둔 국내 선행연구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송인경[23],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정영미[24]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을 다루려고 하며,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다중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노화 태도가 개인이 지닌 경제력, 신체건강, 자아존중감 같은 심리적 자원, 가족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도구적 지지, 사회참여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가정해본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노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노화 태도 관련 함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이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통제 후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나이 든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노화에 대한 태도는 나이 들어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 점에서 구별된다. Sijuwadef[25]는 노화에 대한 태도를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상으로 간주하였다. Lawton[26]은 나이 들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나 상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노화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보편적 소망이었던 장수를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노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노년을 쇠퇴와 상실로 규정하는 고정관념이 강해 노년을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기 쉬우며, 가족과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생애주기로 여긴다. 서구 사회 또한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노화는 나이 들에 따라 질병, 의존, 외로움,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동반되는 불가피한 쇠퇴과정으로 여겨진다[27]. 드물긴 하지만 노화태도와 관련된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국외 연구 가운데 긍정적 노화태도를 보고한 연구로는 490명의 지역사회 거주 노르웨이 노인의 노화태도를 분석한 Kalfoss[22]의 연구가 있는데 육체적 변화와 심리적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태도는 지혜롭게 삶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나이 들에는 많은 유쾌한 일들이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이 나이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화에 대한 신념이 문화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인은 미국인과 비교해 전반적인 노화 불안

수준이 높으며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걱정, 외모에 대한 걱정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8]. 다른 주장도 있는데 유교적인 아시아 문화가 서구문화보다 더 긍정적인 노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29], 일본이나 한국 등 동양권 나라에서 나이 들은 사회 내에서 높은 존경과 책임과 연관되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고 노인에게 가족과 사회 내 더 존중받는 역할을 부여하는 유교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0][31].

일반 사회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개인은 노년기에 본인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6]. 장숙량[32]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은 나이 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중장년 성인과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조아라·오희영[19]은 중장년 성인의 노화태도 평균점수는 중간 값을 약간 상회한 반면 노인의 노화태도 평균 점수는 중간 값에 못 미쳤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노화에 대한 노인의 태도는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집단이 자신의 노화와 관련해 어떤 주관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화의 부정적 측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개인이 지닌 자원은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갖게 할 것으로 가정되는데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으로는 경제력, 건강, 자아존중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스스로 활동적, 생산적이라고 인식하므로[33], 경제력이 좋을수록 노인은 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력이 좋은 편인 노인들은 어렵거나 보통인 노인들보다 노화를 심신의 변화와 성장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34].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은 노인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이 좋으면 상실의 시기로 노년을 지

각하지 않으며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기찬 채 지내기 쉽다[13]. 나쁜 건강상태는 부정적인 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8][19][34][35].

노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실들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행동과정이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작용하므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36]. 따라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노화태도를 갖게 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노화태도를 막을 수 있는 애정과 확인 등의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 등의 도구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37]. 가족이나 친구와 적절하게 교류하는 노인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역경에 대한 대처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38],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은 노인은 긍정적 노화태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활동이론에서는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사기 유지에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해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노화를 심신의 변화와 성장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34].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되어진다. Cummings, Kropf와 DeWeaver[39]는 노년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이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 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반면 여러 연구에서 남녀 노년기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5][34][37].

종단연구로 동일한 노인응답자의 노화태도를 분석한 이미진[6]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화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보였다[37].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유무와 노화태도의 관계를 살펴 본 정영미[24]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된다[19][37].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젊은 세대와 교육 격차가 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쓸모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석된다[6].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 선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이루어졌고 60세 이상 노인 198명이 참여하였다.

2. 측정

중속변수인 노화에 대한 태도는 Lawton[26]이 개발한 PGCMS의 하위척도인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own aging-ATOA)로 측정하였다. ATOA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에 1점을, 그렇지 않은 응답에 0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ATOA 척도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62$ 였다.

독립변수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개인자원 가운데 경제력은 월 소득으로, 신체건강은 지난 6개월 동안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수로 측정하였다. 만성질환 유형은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심장질환, 간질환, 소화기질환, 천식, 파킨슨병, 요통/신경통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40]의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4점)'까지 4점 척도가 사용되었고 부정적인 의미의 항목들은 역점수가 부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4$ 였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Zimet 등[41]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척도(MSPSS)로 측정되었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가족의 정서적 지지 신뢰도는 $\alpha=.73$ 이고 친구의 정서적 지지 신뢰도는 $\alpha=.85$ 이다. 가족의 도구적 지지와 친구의 도구적 지지는 '전혀 돕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돕는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참여 수준은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경로당, 여가모임 등의 총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는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만연령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자기기입식으로, 그 외 조사대상자는 대면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로 살펴보았다. 셋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통제 후 노인의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정도가 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독립변수 관련 기술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여성 136명(68.7%), 남성 62명(31.3%)로 여성노인이 많으며, 연령은 70대가 88명(44.4%)로 가장 많았고, 60대 65명(32.8%), 80대 45명(22.7%) 순이었고, 평균은 73.4세($sd=7.5$)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	62(31.3)
	여	136(68.7)
연령	60~69세	65(32.8)
	70~79세	88(44.4)
	80세 이상	45(22.7)
	평균(표준편차)	73.4(7.5)
결혼상태	기혼	101(51.0)
	사별	92(46.5)
	기타	5(2.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0(50.8)
	중학교 졸업	24(12.2)
	고등학교 졸업	32(16.2)
	대학 이상	41(20.8)

결혼 상태는 기혼 101명(51%), 사별 92명(46.5%), 기타(이혼, 미혼) 5명(2.5%)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00명(50.8%)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학 이상 41명(20.8%), 고등학교 졸업 32명(16.2%), 중학교 졸업 24명(12.2%) 순이다.

[표 2]에서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월소득 평균은 99만 5천원 정도였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2.17이었다. 자아존중감의 변환 평균점수는 2.84로 중간 값 2.5를 약간 상회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은 변환 평균점수 3.67로 중간 값 3점을 넘어 양호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도구적 지지는 2.93으로 중간 값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 수준은 변환 평균점수 2.80으로 중간 값 3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지지는 1.89에 그치고 있다.

월 1회 이상 참여한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경로당, 여가모임 등의 개수로 측정된 사회참여 정도는 평균 2.19개였다.

표 2. 주요 독립변수 관련 기술통계

변수	평균(표준편차) / N(%)
경제력(월소득)	평균=995,100원 (표준편차=102545원)
건강(만성질환) 수	평균=2.17 (표준편차=1.73)
자아존중감	평균=2.84 (표준편차=0.44)
가족 정서적 지지	평균=3.67 (표준편차=1.13)
가족 도구적 지지	평균=2.93 (표준편차=1.24)
친구 정서적 지지	평균=2.80 (표준편차=1.08)
친구 도구적 지지	평균=1.89 (표준편차=1.08)
사회참여 수준	평균=2.19개 (표준편차=1.97)

2.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표 3]에 제시되었듯이 “나는 지난 해 만큼 기운이 넘친다”에는 응답자 가운데 21%만 동의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노화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에는 55.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아 과반수 이상 긍정적 노화태도를 보였다. “지금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에는 42.4%가 동의했고, “나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에는 40.4%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에는 36.4%가 동의해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비율이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5개 문항의 점수를 합계해 살펴 본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평균 1.95로 중간 값 2.5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화에 대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편으로 나온 분석결과는 선행연구[12][28]와 일치하고 있다.

표 3.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문항	그렇다 (N%)	아니다 (N%)
나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118(59.6)	80(40.4)
나는 지난 해 만큼 기운이 넘친다.	41(20.7)	157(79.3)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89(44.9)	109(55.1)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72(36.4)	126(63.6)
지금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	84(42.4)	114(57.6)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M=1.95(sd=1.50)	

3.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배우자 유무와 가족의 도구적 지지 간에 .64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보아야 하는 .70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또한 모두 2.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분석결과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델 4의 설명력은 34.7%였고, 자아존중감($\beta=.389, p<.001$)과 경제력($\beta=.238, p<.01$)이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소득으로 살펴 본 경제력의 영향력은 경제수준에 따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김정현, 김욱[34]의 연구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경제력이라는 개인자원 요인이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와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8][19][34][35][37]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는 건강상태가 본 연구에서는 노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 약화나 제약을 나이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화 태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된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수로 수량화 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영향력은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모델 4에서는 모델 2에서의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모델 3에서의 사회참여의 유의성이 사라졌다¹⁾. 이는 모델

1) 사회적 지지 변수가 투입된 모델 2의 노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8.3%이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지지

표 4.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047	-.014	.042	.013	.172	.053	-.063	-.019
연령	-.002	-.008	-.001	-.005	.002	.009	-.002	-.010
배우자유무	.355	.120	.246	.083	.476	.160	.492	.166
교육수준	-.129	-.137	.120	.129	.050	.053	-.193	-.205
개인 자원								
경제력(월소득)	.003	.245**					.003	.238**
건강(만성질환수)	-.082	-.093					-.086	-.099
자아존중감	.147	.428***					.134	.389***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가족)			-.044	-.037			-.155	-.128
정서적 지지(가족)			.362	.275**			.146	.108
도구적 지지(친구)			.003	.002			-.078	-.057
정서적 지지(친구)			.212	.153			.131	.091
사회참여					.173	.228*	.078	.103
R ²	.323		.183		.110		.347	
수정된 R ²	.294		.148		.085		.298	
F 값	11.16***		5.21***		4.44***		7.05***	

*p<.05, **p<.01, ***p<.001

4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개인자원 변수를 포함했을 때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경제력 같은 개인자원이 자신의 노화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을 좌우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지역사회 노인의 태도와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수준이 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화

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초래되는 변화이지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43]는 점에서 본 연구는 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긍정적 노화태도 확립과 증진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별 분석과 전체 문항을 함께해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노인 빈곤율,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수명,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역할 상실 등 신산한 노년의 삶을 많은 노인들이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개인자원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경제력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져 자아존중감과 경제력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자아존중감은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

변수 중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beta=.275$, $p<.01$)만 유의미하였는데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노화에 따라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 속에서 사회적 관계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42]. 즉, 노인은 시간을 한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 가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소망으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측면에 집중하려 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참여 수준을 추가한 모델 3의 노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1.0%이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beta=.228$, $p<.05$)를 많이 할수록 노화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 사회참여의 영향력은 김정현·김옥 [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면 일상의 욕구 충족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상대적으로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노화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당사자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 교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여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노화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테츠 및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역사회 내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한다. Levy[2]는 고정관념 형성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연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재화되었다가 노년기에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령사회에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산되는 것은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사회구성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 영역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역량 있는 노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화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자신의 삶을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으로 전개할 수 있고[44], 자신에게 일어난 힘든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므로[45], 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콕아람, 허만세, 이신영[46]은 메타분석으로 예술치료, 상담,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활용한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서전 쓰기’나 ‘북클럽’ 등을 활용 해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거나 노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글쓰기나 독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이와 같이 검증된 집단 프로그램을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회 등 유관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력이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의 확대다. 경제력은 건강유지, 여가활동, 인간관계 등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게 하므로 노인의 노화 경험과 주관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다수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으므로 노인의 소득보장 보완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동비 인상,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는 청신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개인자원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 유의성이 사라지긴 했으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개인자원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에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프로그램은 가족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거의 미미한 실정으로 노인의 가족관계나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교육 및 활동기회 확대가 필요한데 대부분 노인들이 경험하는 역할 상실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사회참여 확대 방안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면 긍정적 노화태도는 물론 노년기 삶의 질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한계와 함께 접근성과 조사편의성 때문에 노인 관련 복지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표집을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조사 대상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5년 생명표, 2016.
- [2] B. R. Levy, "Mind matters: Cognitive and physical effects of aging self-stereotypes," *Journal of Gerontology*, Vol.58, No.4, pp.203-211, 2003.
- [3] G. Low, A. E. Molzahn, and D. Schopflocher, "Attitudes to ag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20 countri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11, p.146, 2013.
- [4] S. Wurm, M. J. Tomasik, and C. Tesch-Römer, "Serious health events and their impact on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age and a positive view on ageing," *European Journal on Ageing*, Vol.5, No.2, pp.117-127, 2008.
- [5] M. Top, H. Eris, and F. Kabalcioğlu, "Quality of life(QOL) and attitudes toward aging in older adults in Şanlıurfa, Turkey," *Research on Aging*, Vol.35, No.5, pp.533-562, 2012.
- [6] 이미진,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잠재성장모델을 이용한 패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1호, pp.101-124, 2012.
- [7] 김수현, "노화에 대한 기대수준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6호, pp.932-940, 2007.
- [8] C. Bryant, B. Bei, K. Gilson, A. Komiti, H. Jackson, and F. Jud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 ag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4, No.10, pp.1674-1683, 2012.
- [9] Y. Yamada, L. Merz, and H. Kisvetrova, "Quality of life and comorbidity among older home care clients: Role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aging," *Quality of Life Research*, Vol.24, No.7, pp.1661-1667, 2015.
- [10] C. Bryant, B. Bei, K. Gilson, A. Komiti, H. Jackson, and F. Judd, "Antecedents of attitudes to aging: A study of the role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Vol.56, No.2, pp.256-265, 2016.
- [11] B. R. Levy and L. M. Myers, "Preventive health behaviors influenced by self-perception of aging," *Preventive Medicine*, Vol.39, No.3, pp.625-629, 2004.
- [12] K. A. Sargent-Cox, K. J. Anstey, and M. A. Luszcz,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physical functioning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Vol.27, No.3, pp.750-760, 2012.
- [13] S. Wurm, C. Tesch-Römer, and M. J. Tomasik, "Longitudinal findings on aging-related cognitions, control beliefs,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Vol.62, No.3, pp.156-164, 2007.
- [14] B. R. Levy, M. D. Slade, and S. V. Kasl, "Longitudinal benefit of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on functional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Vol.57, No.5, pp.409-417, 2002.
- [15] 한지나, "노인의 연령정체성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2권, 제5호, pp.33-42, 2015.

- [16] 김지영, *대학생의 노인관련 학습 및 활동 경험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7]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세대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28-241, 2015.
- [18] 탁지연, *A comparative analysis on attitude towards ageing of middle-aged adults in South Korea and Japan*,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9] 조아라, 오희영, “중장년 성인과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간호학회지*, 제29권, 제1호, pp.41-50, 2017.
- [20] 김정희, 정혜선,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40-850, 2013.
- [21] 박재숙, 성희자, “사회복지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3권, pp.1-26, 2010.
- [22] M. H. Kalfoss, “Attitudes to ageing among older Norwegian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Vol.22, No.5, pp.238-245, 2017.
- [23] 송인경,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4] 정영미,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기분상태, 일상생활활동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56-667, 2005.
- [25] P. O. Sijuwade, “Attitudes towards old age: A study of the self-image of aged,” *Studies on Home and Community Science*, Vol.3, No.1, pp.1-5, 2009.
- [26] M. P. Lawton,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pp.85-89, 1975.
- [27] H. K. Black, “Pictures of suffering in elders’ narrative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23, No.2, pp.82-89, 2009.
- [28] R. J. Yun and M. F. Lachman,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 on old ag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21, No.1-2, pp.55-70, 2006.
- [29] C. Yoon, L. Hasher, F. Feinberg, T. A. Rahhal, and G. Winocur,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emory: The role of culture - based stereotypes of aging,” *Psychology and Aging*, Vol.15, No.4, pp.694-704, 2000.
- [30] B. Ingersoll-Dayton and C. Saengtienchai, “Respect for the elderly in Asia: Stability and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48, No.2, pp.113-130, 1999.
- [31] K. T. Su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otivations for parent care: The case of Americans and Korean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8, No.2, pp.195-209, 1994.
- [32] 장숙량, “한국 노인의 나이 들에 대한 인식,” *이주일 외, 성공적인 한국 노인의 삶*, 박학사, pp.164-176, 2008.
- [33] 권중돈, 손의성,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81-106, 2010.
- [34] 김정현, 김옥, “노화태도척도(AAQ)의 한국 노인 적용을 위한 타당성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4호, pp.1181-1197, 2012.
- [35] P. Ron, “Elderly people’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aging and old age: The role of cognitive disso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22, No.7, pp.656-662, 2007.
- [36] 이소영, “재가노인의 건강행위 관련 특성, 자아 존중감, 일상생활수행 능력 및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89-501, 2010.

- [37] R. A. Lamont, S. M. Nelis, C. Quinn, and L. Clare, “Social support and attitudes to aging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84, No.2, pp.109-125, 2017.
- [38] 진영선, *노년 인생 제2막의 삶*,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4.
- [39] S. M. Cummings, N. P. Kropf, and K. L. DeWeaver, “Knowledge of attitudes toward aging among non-elders: Gender and race differences,” *Journal of Women and Aging*, Vol.12, No.1/2, pp.77-91, 2000.
- [4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41]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1988.
- [42] 최해경,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 [43] 최승호, “노년에 대한 인식전환,” *충북 Issue & Trend*, 제27권, pp.18-20, 2017.
- [44] 오종희, 전리상, “노인의 여가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161-186, 2010.
- [45] 김태현, 한은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81-106, 2004.
- [46] 곽아람, 허만세, 이신영,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제35권, 제2호, pp.315-335, 2015.

저 자 소 개

최 해 경(Hae-Kyung Choi)

정회원



- 1991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사회복지전공(Ph.D)
- 1996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